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4월 30일

CUOMO 주지사, 국가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신개혁 제안을 통해 공공 부패와 개혁 선거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16세부터 17세까지 투표 전 등록 허용, 투표에 필요한 서명 수 축소 등 투표 절차 간소화 제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 절차를 쉽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제안 및 개혁을 발표하여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수립된 제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개혁은 투표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16세부터 17세까지 투표 전 등록을 허용하고, 후보자에 대한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임시 투표도 유연하게 개표 결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본 세션에서 제안된 개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지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에서 국가 선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기 투표 및 기타 개혁에 대해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정부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에게 더 강력한 형사 처벌로 기소할 수 있는 엄격한 도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시 더 엄격하게 단속을 요하고 개인 간 투표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수 년 동안 뉴욕 주는 공직 후보 선출에 대한 투표 과정에서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뒤처진 암흑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일 동안 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뉴욕 유권자들이 더 크고 확실한 음성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정부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투표 과정에 대한 상식적인 개혁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Dick Dadey 시민 연합 집행 이사는 "최근 부패 스캔들은 주정부에서 선출된 공무원에 대한 권한 강화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권한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로 결정됩니다. 오늘날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 주의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하고, 16-17세 유권자들이 투표 전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임시 투표 개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등록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직하고 책임있는 주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Sally Robinson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은 "우리 연맹은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이 선거법 제안이 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정부의 미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는 정부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포괄적인 캠페인 금융 개혁은 시민들에게 진정한 주 정부를 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rennan 센터의 Lawrence Norden 법무부 민주주의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은 "지난 11월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유권자들과 투표자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은 후 시민 모두가 선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이해하기 쉽고, 16세~17세의 투표 전 등록은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함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지사와 입법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16세~17세의 투표 전 등록

뉴욕은 현재 유권자 등록이 전국에서 47위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투표 인구는 총 뉴욕 인구 중 64%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권자 등록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16세~17세는 학교 및 DMV에서 "투표 전 등록"이 허용됩니다. 투표 전 등록된 올해 18세가 되는 청년들 중 자신들의 정보가 검증된 유권자들은 자동으로 투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및 메릴랜드 등 여러 국가들은 투표 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제안은 젊은이들이 초기에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자연스러운 투표 습관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미래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운전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투표장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접근성 개선

현재 뉴욕주 법령에는 후보자가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데 이를 위해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번거롭게 자신의 서명을 투표 용지에 올려야 힙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재임자가 규정에 대한 복잡한 지식과 서명을 수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재임자에게 유리한 입지를 안겨줍니다. 또한 의무화된

Korean

수의 서명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물론 투표 접근성에 대한 법정 외부의 분쟁이라는 위협 때문에 종종 새로운 인재들이 출마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국회에 대한 비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주기관이 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방법에 따르면 주 상원 의원을 선출할 경우 후보자는 상원 지구 또는 1,000개의 서명 중 숫자가 더 낮은 쪽에서 특정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의 5%에 대한 서명을 수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은 1,000개 이상의 서명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그 서명 수는 550개 정도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기타 자치 기관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줄어들면 공직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뉴욕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엄청난 선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 외부의 청원서에 대한 서명에 유권자 자신의 지역 또는 도시가 서명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한 철회안을 제안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는 각각 자신의 집 주소 이외에 거주하는 카운티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현재 뉴욕시 내부의 요구 사항이며 전국에 걸쳐 확대될 것입니다.

투표 단순화

뉴욕 주의 투표는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유권자의 혼란을 선도하고 이 때문에 선거 당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투표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를 채택한 주지사의 제안은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투표 방식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이 제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투표 이전에 각 당국에 표준화된 템플릿을 배포해야합니다. 투표 용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후보자 이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모두 대문자 표기" 방식이 아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여 명확하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 유권자가 읽기 쉽게 하고 스캐너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후보자 이름(법령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호 제거 등) 인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 후보자 이름 바로 왼쪽에 공란을 표시하여 극적인 모호성과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새로운 투표 용지는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더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 이외의 다른 나라 언어를 요구하는 지자체에 한해 2개국 언어로 된 투표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문 담당자들은 각 유권자가 해당 언어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 및 기타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 글꼴을 크게 하여 볼 수 있게 해주고 선거 당일에 대기 시간 및 긴 줄이 발생하지 않게 해줍니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 임시 투표 현대화

현재 뉴욕법에 따라 유권자가 투표소에 방문했을 때 자신이 이름이 유권자 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임시 투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임시 투표가 개표로 인정되려면 유권자는 투표권을 인정받은 선거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 임시 투표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투표권이 인정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카운티가 올바른 경우 투표권이 인정되는 투표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많은 뉴욕 시민들이 참여한 투표권이 인정을 받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동시에 이 개혁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이 없는 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권자 등록 기간 연장

2012년 뉴욕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서 44위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차지했으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투표 자격 인구 중 투표율이 5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참여 기록이 저조한 한가지 이유는 뉴욕주 법령에는 이러한 투표 참여에 대한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령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마감은 기본 투표 및 일반 투표일 전 25일이내입니다. 그 결과 선거일 마감 전 24일까지 자신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마감은 선거일 전 25일이 아닌 10일에만 실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